사 설

사찰방화범은 누구인가

종교란 철두철미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초월자에 대한 특정종교의 배타적 헌신조차 결국은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은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공동체라는 휴머니즘적 문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공동체는 전체에 대한 개인의 협력과 양보, 다른 존재에 대한 겸양과 존중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아니 강제한다. 이 원칙이 깨질 때 공동체는 이를 저지하고 교도하고 징벌할 의무와 책무를 진다.

종교 집단 또한 공동체의 일부인 이상 이같은 감시와 징벌, 권유와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 외국의 경우, 나는 그들 외도(外道)의 종교적 공동체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상적 수준의 규범을 떠나지 않음을 알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교회의 모임이나 장례식의 집회, 가톨릭의 미사등에 참여하면서 나는 송광사 불교의 소에 못지 않은 장엄한 영혼의 울림을 경험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땅에는 다른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파괴와 훼손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묵인되며, 심지어 조장하는 광신의 작태가 만연하고 있는가.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 등 최근 강북구 일원 및 울산 성남 등 잇단 사찰방화사건을 지켜보며 경악과 함께 자괴심마저 솟구친다. 종교가 권력의 외피를 입고, 또 그 자체 권력으로 행사하며, 불건전한 집단의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있지나 않은가. 대체 경찰은 무얼하고 있는가. 혹 집권 세력의 지배적 종교에 기대거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방화범들을 정신질환이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방면하고 있다고 들었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행여 공권력이 종교의 이름 아래 보호한다면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헌정질서파괴적인 작태이다. 권력은 종교를 넘어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종교보다 거룩한 힘임을 인지하라.

경악과 분노, 슬픔과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불교유산이 어찌 특정 종교의 자산만이랴. 최근의 비극적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특정 종교에 대한 광신자의 비정상적 혐오에서 저질러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사태의 근본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외세의 심각한 도전을 읽는다. 전통유산은 불교를 포함하여 유교와 민속, 사먼과 도교를 무형적 코드로 하여 형성된 것들이다. 장승백이의 장승들이 불에 지져지고, 경주의 석불이 나치스의 붉은 하켄크로이쯔(그것을 도저히 십자가로 읽을 수 없다)로 환칠되는 이 기막힌 현실앞에 그저 망연할 수밖에 없다. 참담한 현실 앞에 역설적이게도 나자렛 예수의 그 연민의 울부짖음을 떠올린다.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옵니다." 불을 지르고 탱화를 찢은 손은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까. 불합리한 정열과 현실의 좌절이라는 정신의 어둠(無明) 속에서 초현실성에로의 도피가 파괴적 충동과 배타적 독선으로 이어졌다. 영웅주의는 실패한 인격, 좌절된 현실의 표출이다. 히틀러의 철십자와 석불의 붉은 가위표의 심리적 기제는 동일하다. 그래서 위험하기 이를데 없다.

종교는 배타적 독선의 교설을 버려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에 대한 관용은 지구촌 시대의 기초 덕목이다. 이해는 고사하고 공격이라도 멈추라. 최소한 물리적 힘을 통한 파괴적 작태는 제발 삼가라. 각 종교집단은 초월과 헌신의 이름으로 그같은 배타적 작태에 대한 합리화나 피난처를 제공하지 말라. 종교는 모름지기 전체의 가치에 헌신하는 휴머니즘의 고취이지, 개인의 좌절감이나 비현실성을 추인하는 면죄부가 아님을 거듭 명심하라.

열린마당 조계종신도회

올해도 작년에 이어 조계종이 전국 조직의 신도회조차 없이 최대 명절 부처님오신날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총무원이 중앙신도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신도회가 창립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신도회 40여년 전통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은 확고하다. 개혁에 걸맞는 신도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계종 신도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24개 본사·직능단체 동참 "새 술은 새 부대에"

김 동 혼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 대변인〉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신도회가 새롭게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불자들로부터 많은 우려섞인 얘기가 들린다. 대표적으로 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개혁회의에서 새로 제정된 신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도회는 조계종 총무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창립과 관련된 모든 일정과 준비사항은 총무원과 긴밀한 협의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많은 제약 가운데서도 개혁종단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전국적인 신도조직을 꾸리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미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참여했고, 1천3백여명의 발기인과 지하철법우회 등 20여개 직능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를 교구본사와 직능단체, 교계지도자들로 구성하려고 한 조직원칙에 충실하게 창립준비가 진행중이다. 1차 창립시한으로 예정하고 있는 6월말까지는 주요직능단체들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조직확대에 보다 심혈을 쏟을 계획이다.

조계종의 종헌 종법에 따라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신도대표기구는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이다. 조계종 신도법에 따른다는 전제하에 어떤 단체나 개인도 동참할 수 있는 문호가 항상 열려 있다.

한국불교가 짊어져야 할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신도회를 건설하는데 모든 불자가 벽돌 한장 쌓는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40년 역사 인정…신도조직 이원화 막아야

이 건 호 〈전국신도회 활성화대책위원〉



근래 조계종 전국신도회에 대해 좋지 않게 알려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재가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또 직간접적으로 신도운동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못함은 솔직한 심정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1950년대 한국불교의 일대 변혁기를 헤쳐오며 조직된 전국규모의 신도단체이다. 당시 종단의 원로 대덕 중진스님들의 정화대열에 동참하였던 이종익 김한천 현오 이무애 박충식 황의돈 박사님을 비롯하여 김금강심 진무착행 장대보화 박보현성 박보현심 송정광명 손지행자 조대법화 김법련화 등 많은 신남신녀들이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했었다.

이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통종단을 수호하기 위한 신도조직의 절실함을 느껴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아 전국신도회를 결성했다. 또 조계종 종법인 신도단체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신도회의 명칭에 '조계종'을 쓰게 되었다. 한국불교의 법통을 잇고 통합종단으로 공인된 대한불교조계종의 외호를 위해 각급 신도조직과 신도단체들을 효율적으로 통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와 사실로 보아 현재 조계종전국신도회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나 명칭의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둔다. 중앙신도회 창립은 앞으로의 우리 조계종단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종단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국신도회 대의원들의 결의를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총무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 어떠한 어려움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의 법통을 계승 발전시켜 갈 것을 다짐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신도회가 지난 11일 중앙신도회 창립 중지를 조계종 총무원에 요청키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신도회는 송월주 총무원장을 방문, 조계종의 합법적인 신도단체는 전국신도회임을 강조하며 회장 추천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 준비위와 조계종 총무원은 개혁회의에서 개정된 신도법에 따라 조계종의 유일한 신도조직은 중앙신도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중앙신도회 준비위는 전신회의 창립중지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신도회 유일조직 '낙점'

총무원입장 '전신회 해체후 중앙신도회로'

전신회 대의원총회서 탈조계종화 움직임

조계종 총무원의 전신회 부정은 이미 지난해 1월 중앙신도회 구성 논의단계부터 공식화한 것이다. "과거 신도단체가 소수에 의해 전횡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사례를 비추어볼 때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가진 신도조직의 필요성은 더욱 간절한 것이었다"며 전국신도회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즉,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도조직의 결성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 당시 전국신도회는 와해상태나 다름없었다. 당시 회장이었던 조기현씨가 상무대비리로 구속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월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씨의 임기를 4월까지 보장키로 하면서 조씨는 재기를 노렸고, 이 대회에서 활성화대책위를 구성, 재건에 나섰다. 그러나 조씨의 회장임기보장은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이 조계종 신도회의 회장이 되어선 안된다는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고, 조씨는 한달만인 3월초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전국신도회는 조씨에 따른 부담감을 덜었고 "한사람의 문제로 전국신도회 전체를 부정해선 안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이어 지난 1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새회장 선출을 유보한 채 조계종 총무원에 중앙신도회 창립중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신도회 내에서는 꼭 '조계종' 전국신도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지부장은 "각 시도 신도회는 특정종단에 대한 귀속감이 희박하다"며 탈조계종화의 움직임을 전했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의 결의는 독자적인 신도단체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독자화에 따른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신도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무원의 입장은 확고하다. '전국신도회 해체 후 중앙신도회 합류'가 기본 방향이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불구경

목어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연등축제가 열린 지난 19일. KBS-TV는 밤9시 종합뉴스에서 머리기사 다음으로 연등축제를 보도했다. MBC는 휴일 표정 묶음속에 3번째로 내보냈고, SBS도 밤8시 종합뉴스에서 간단히 취급했다. 이날 공교롭게도 어느 교회에서 4천명이 헌혈한 장면이 방송마다 보도됐고, 연등축제와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1975년에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된 이후 '무명을 밝히자'는 제등행렬은 시민들의 시선을 끄는 거리축제로 자리를 굳혔다.

초파일은 우리민족의 민속명절이다. 연등을 밝히는 세시풍속을 살려 국민가슴에 알게 모르게 스며있는 정서적 불심을 피어나게 하자는 그 뜻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벌써부터 '초파일 행사 국민축제로'라는 슬로건이 내걸렸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 신선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등장했다. 불자들은 물론 거리의 시민들도 외국인도 신명나서 축제의 마당에 어울렸다.

소록도에도 연등 밝혔더라면…

그러나 여기서 숙고해야 할점은 같은날 있었던 헌혈 장면을 보며 왜 마음이 편치 않았느냐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초파일 공휴제정 4반세기를 보내면서 연등축제의 질적인 문제를 돌아봐야겠다. 성대하고 화려한 양적 성장에 비해 안으로는 얼마나 알찬 연등을 밝혔는가 점검해 보자.

종교의 행사는 모두 법회다. 때문에 아무리 축제라도 법회답고 종교다운 검소함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화려한 쇼, 일회성 행사로 봉축의 뒷마당이 공허해서는 안된다.

BBS의 봉축특집 프로그램에 의하면 외로운 이들이 서로 등기대어 살고있는 소록도에는 올 부처님오신날 연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연등을 밝히는 이유와 그 공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진정한 국민축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답도 나올 것이다.

금년 연등축제를 본 불자들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너무 좋았어요. 불교도 이제 이 정도다 싶어 불자의 긍지를 느꼈습니다." "더이상 화려할 이유 없다." "포교전진대회 같은 느낌의 물량공세는 화려한 집들이와 무엇이 다른가."

부처님께서는 어떤 봉축행사를 바라실까.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착한 친구

착한 친구는 남을 내몬처럼 생각한다. 게으름을 피울 때 깨우쳐 주고, 일을 방해하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허물을 보아도 꼬투리를 잡으려 애쓰지 않는다.

〈잡아함경〉

협찬 영제한의원
원장 김 영 삼
TEL.(0336)32-1100

대흥사 여름수련법회 수련생 모집

서산스님의 임제선풍과 초의스님의 차향이 어우러진 대흥사에서 4박5일 여름 수련법회를 엽니다.
묵언 속에 좌선·경전새김·발우공양을 여러 도반과 함께하는 혼자의 시간이자,
우주를 집삼아 시간의 무대 위에 나를 녹여 하나의 생명으로 복귀하는 빛의 자리입니다.
귀한 법석을 함께 연출해 낼 선남선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서 양식

대흥사 여름수련법회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_____ 한자_____ 불명_____ 성별: 남, 여
주소 :
주민등록번호: _____ 전화 및 팩스 _____
직업 또는 학교 : (구체적으로) 종교:
수련회 경험 유유 : 無 ( )
有: _____ 寺 _____ 년도 제 차
참가소견(자세하게):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일정표

찻 수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일	대 상
1차	7월 7일 - 11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2차	7월14일 - 18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3차	7월21일 - 25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4차	7월28일 - 30일	70명	7월 20일	초등학교
5차	8월 1일 - 3일	70명	7월 20일	중·고등학교
※6차	8월 4일 - 8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7차	8월11일 - 15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6차는 수련 경험이 있는 사람

유의사항

◆ A4 용지에 좌측 양식대로 본인이 직접 각 항목 충실하게 기재,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십시오.
◆ 정원 관계상 수련원 소정의 심사원칙에 의해 선발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 6월 30일까지 동참 가부를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동참이 확정된 후 불참 사유가 생기면 즉시 본 수련원에 알려주십시오.

준비물

■ 1.필기구 2.세면도구 3.침구 4.고무신(운동화) 5.우산 6.손전등 7.동참금6만원(교재대 포함·수련당일 납부)

교통편

■ 서울에서 고속버스 : 강남터미널 호남선-해남행(5/30분소요) 8회→7:20/8:30/10:00/11:00/13:40/15:00/16:00/17:55
■ 비행기 : 1. 서울 - 광주/광주 - 해남(버스1:40분 소요)
2. 서울 - 목포/목포 - 해남(버스1시간 소요)
■ 해남 - 대흥사 : 버스 25분/택시15분 소요

보낼 곳

우 : 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수련원

문의 및 연락처

전화 : 0634-34-5502, 5503
팩스 : 0634-35-5357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석 천 운 합장